

日帝强占期 中國語 教材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來着’에 관한 考察

申 美 燮*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官話問答》에 나타난
‘來着’의 어법 특징 |
| II. ‘來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의미 특징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來着’은 중국어 口語에서 자주 보이는 말로, 北京을 중심으로 한 북방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찍이 趙元任(1926), 王力(1943), 朱德熙(1982) 등 많은 언어학자들은 이 어휘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고, 근래 들어서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¹⁾.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의 중국어 교재와 달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口語 형식의 지문이 많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현대 중국어 교재에서는 거의 잘 등장하지 않는 ‘來着’가 종종 나타난다. 본고는 1915년 경 출판된 것으로 추측되는 《官話問答》²⁾에서 나타나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1) 陳前瑞(2005), 재인용.

2) 《官話問答》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중국어 회화 교재이다. 필사본 형태로 되어 있다. 작가는 미상이고 초서체로 쓰여 있다. 본고는 2010년 4월에 출간된 朴在淵·金雅瑛 교점본(鮮文大學校 中韓齋

는 ‘來着’을 중심으로 복경관화 교재 속에서 나타나는 ‘來着’을 분석하여, ‘來着’가 지니는 어법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來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의미 특징

‘來着’는 현재까지 대략 세 가지 견해로 나뉘어 분석되고 있다. 첫 번째는 ‘來着’을 시간과 연관시켜 시제(tense) 혹은 상(aspect)의 표지로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語氣를 나타낸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來着’가 시간과 어기 모두 나타낸다는 견해이다. 첫 번째 주장은 ‘來着’의 주요 기능이 ‘近過去’와 관련 있는 상의 표지로 간주하여 시간 혹은 시제조사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來着’ 자체로는 시간의 의미가 없고 단지 의미상 근과거나 관련 특징을 나타내는 어기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세 번째 견해는 ‘來着’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來着1’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조사 혹은 시제 조사 혹은 완료상(perfect)을 나타내며, ‘來着2’는 완곡함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보고 있다.³⁾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他剛才還在這裏來着，怎麼一轉眼就不見了。
그는 방금 여기에 있었는데, 어째서 눈 깜짝할 새에 없어졌지.
今兒個是甚麼日子來着?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위 예문에서 예문 (1)의 경우는 과거의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고 있으며, (2)의 경우는 과거를 나타내는 작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단지 어기를 부드럽게 하는 어기사로 보는 경우이다.

譯文獻研究所)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3) 熊仲儒(2009), 인용.

이처럼 ‘來着’는 과거와 관련이 있는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동태조사 ‘了’, ‘着’, ‘過’처럼 그 의미와 문장 속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완료로, 혹은 근과거의 경험상 혹은 과거 진행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간과 관계없는 어기사로 보이기도 하여 여러 가지 추론을 낳고 있다.

‘來着’에 대한 초기의 인식은 대부분 과거의 시간에 한정되었다. 趙元任(1926)은 과거 진행 혹은 근과거로 인식했고, 太田辰夫(1947)은 사건이 발화시간 이전에 지속된 것을 나타낸다고 인식했으며 Iljic(1983)은 已然의 미완성체 특히 사건과 발화 시간 이전에 간격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⁴⁾ 宋玉柱(1981)와 張誼生(2000)은 ‘來着1’은 時制 표기라고 생각했으며, 朱德熙는 時態의 어기사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학자들은 ‘來着’를 시상의 표시라고 간주하고 있다. 王力(1943)은 근과거상(recent aspect)으로, 龔千炎(1995) 등은 ‘來着’를 근경험상 혹은 완료상의 표기 등으로 설명했다.

陳前瑞(2005, 2006)는 ‘來着’의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來着’은 시간지칭의 의미의 발전을 통해 시간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의미는 약화하고 완곡함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紅樓夢》과 《兒女英雄傳》 및 北京大學코퍼스(BDCC)에 수록된 現代와 當代 자료를 분석하여 ‘來着’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紅樓夢》에서 當代의 자료로 오면서 ‘來着’는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예가 점차 감소하고, 대신 과거와 현재 모두 가능한 용례가 생기다가 當代 자료에서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예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대와 당대의 용례에서 최근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용례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剛才’를 사용한 용례가 급증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來着’가 주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來着’의 구문이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구문(시간의 범주)에서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구문(양태의 범주)으로 발전했으며,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來着’는 화용기능을 가지게 되어 어기사로 지칭하게 되었

4) 陳前瑞(2005), 재인용.

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여, ‘來着’이 지니는 어법적 특성을 충분한 용례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일체 강점기 교재인 《官話問答》을 통해 나타난 ‘來着’의 예문은 ‘來着’의 의미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官話問答》에 나타난 ‘來着’의 어법 특징

《官話問答》은 크게 <官話問答便蒙>과 <官話問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별로 회화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매 장을 상하 두 편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口語體의 중국어로 본문을 적고, 하단에는 그 내용을 文言文으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구어체에서 나타내는 내용의 의미를 문언문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내용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부, 가족, 의복, 교육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 저자는 不明이나 “弊國朝鮮”이라는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에서도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생각을 나타내는 등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대화들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官話問答便蒙>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39과로 나누어져 있고, 매 과마다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官話問答>은 모두 151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과마다 1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來着’은 모두 36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官話問答》속에 나타난 ‘來着’은 현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과 같이 모두 일률적으로 문장 끝에 나타난다.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도 모두 목적어 뒤에 나타난다. 이는 기타의 어기사가 가지는 특징과 같다.

我喝酒來着。(15p)

나는 술을 마셨었어.

塞跑來着。(3p)

달리기를 했었어.

都會議什麼事來着?(21p)

모두 무슨 일을 회의 했었어?

‘來着’는 대부분 의문문에서 나타난다. 주로 의문사 의문문에 나타나지만, 아래 예문과 같이 일반의문문 또는 정반의문문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在外頭擺着來麼?(15p)

밖에 두었었어?

早起出門來着麼?(26p)

일찍이 출타(여행)했었어요?

今天開會來着沒有?(27p)

오늘 회의 했었어 안 했었어?

你數來着沒有哇?(17p)

너 세었어 안 세었어?

呂叔湘(1999)은 ‘來着’는 일반의문문과 정반의문문에도 출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房玉清(2003)은 일반의문문을 예로 들어 어기조사 ‘麼’나 ‘呢’, ‘不成’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반의문문의 경우 張誼生(2000)의 조사에 따르면 《紅樓夢》에서 단지 5회 나타날 뿐이고, 현, 당대 문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데, 그 원인은 현대 문헌에서는 대부분 ‘沒有’가 허화되어 문말어기사 ‘嗎’로 바뀌었으며, ‘來着’의 기본적인 출현형식이 문장 끝이라는 특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官話問答》속에서는 동목구조 다음에 ‘來着沒有?’의 형식이 출현했으며, 동사+來着沒有+哇의 형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사 ‘來’에 ‘着’가 첨가되어 ‘來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

고, ‘來’ 하나만으로 ‘來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你來着麼?	汝曾來乎?(5p)
당신은 왔었어요?	
我也沒來。	予亦未來。
나도 안 왔어요.	
剛才誰來着哇?	適纔何人來?(13p)
금방 누가 왔었어?	
頭幾天我父親來着。	前數日子予父當來。(20p)
몇 칠 전 나의 아버지가 왔었어.	
在外頭擺着來麼?	即在外面設擺過乎? (=6)
밖에 두었었니?	

현재 북경지방을 비롯하여 河北 지방과 山東 지방 등 많은 지역의 방언 속에서 ‘來着’, ‘來’, ‘着’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북경어의 ‘來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⁵⁾. 위와 같이 《官話問答》 속에 나오는 ‘着’이 앞에 동사 ‘來’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도 ‘來着’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3)의 ‘來’ 만 나오는 경우도 ‘來着’로 이해할 수 있다. 蔣紹愚·曹廣順(2005:249-250)에 따르면 ‘來着’가 明代 까지는 ‘來’로 나타나다가 清代 이후 ‘來着’로 사용되었으며, 특정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찍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의미 층면에서 보면 ‘來着’이 포함된 구문은 분명 과거라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來着’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쓰인 경우이다.

剛才誰來着哇? (=11)
금방 누가 왔었어?
頭幾天我父親來。(=12)

5) 楊希英, 王國栓(2006), 재인용.

며칠 전 나의 아버지가 왔었어.
 早起出門來着麼? (=7)
 일찍이 출타(여행)했었어요?
 當初是看朋友面子來着。(37p)
 당초에는 친구 체면을 봤었어.
 原先不是有事來着麼? (28p)
 원래 일이 있었지 않아?

이 밖의 대다수의 예에서는 시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熊仲儒(2003)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來着’의 구문들이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함께 나타나는 시간사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官話問答》에서는 시간사가 쓰이지 않았지만 상하 문맥을 통해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는 예들이 많이 등장한다. ‘來着’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또 다른 증거는 문언문으로 해석된 부분에서 부사 ‘曾’을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過’를 사용하고 있어, 작자가 ‘來着’을 사용한 구문을 일찍이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언급이거나 경력(경험)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老沒見哪?	何久未見乎? (1p)
오래 안보이던데?	
出門來着。	曾出門。
외출했었어.	
你臉上怎麼這們紅啊?	汝面何如是紅? (15p)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붉은가요?	
我喝酒來着。	汝曾飲酒。
술 마셨었어.	
你數來着沒有哇?	汝曾數過否? (=9)
너 세었어 안 세었어?	
數來着。	曾數過。
세었어.	

當代의 용례의 대다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來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來着’의 의미특징을 近過去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官話問答》에서는 문답의 내용상 遠過去를 지칭하는 내용은 안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구문이 많다. 1920년경에 출판된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과서의 하나인 《支那語集成》에서도 ‘來着’의 의미를 과거로 설명하고 있어, 당시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이나 교재의 저자들은 ‘來着’를 ‘過去’의 표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來着’의 또 다른 의미적 특성은 이유나 원인을 묻는 의문문에 주로 사용된 점이다. 《官話問答》의 본문은 대화 위주의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어체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의문사 의문문을 통해 묻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來着’를 사용한 구문에는 ‘怎麼’, ‘爲什麼’ 등으로 묻는 물음에 ‘來着’를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답에서 ‘來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언문 해석에서 ‘因’을 사용하고 있어, ‘來着’가 이유를 설명하는 의미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怎麼擱這兒呀?	何以放在此? (3p)
어째서 여기에 두었어?	
接(解)手儿來着。	因小解所遺。
불일 봤었어(화장실에 갔었어).	
爲什麼腿疼啊?	何爲腿疼? (3p)
왜 다리가 아릅니까?	
存了筋了。	傷筋矣。
힘줄이 생겼습니다.	
怎麼弄的呀?	胡爲致傷。
어떻게 된 거예요?	

6) 이 책에서는 ‘了’는 完了와 終止의 의미를 포함하고 현재와 미래의 두 의미를 포함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過’는 과거 완료로, ‘着’은 현재로 설명하고 있다.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다시 떠올려서 화젯거리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정황이나 사건을 발화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현재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來着’는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대다수의 ‘來着’를 포함하는 구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 예 (22)에서 (25)까지는 모두 원인을 묻고 이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來着’이 사용되어 과거에 정황이나 사건이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과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張誼生(2002)은 ‘來着’이 근과거의 의미 이외에 現在完了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서술하지만 그 영향이 현재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말하는 사람이 과거를 서술하는 목적은 사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陳前瑞(2006) 역시 《清文啓夢》에서 나타나는 ‘來着’은 영어의 ‘have+p.p.’와 같은 완료상(perfect)의 표기라고 설명했다. 유형학 연구에서도 情態가 참조시간 이전에 발생한 것과 현재시간과의 상관성은 완료상(perfect) 범주가 가지는 기본 의미요소로 간주하고 있다⁷⁾.

그러면 ‘了’ 혹은 ‘過’와 ‘來着’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인가? 사실《官話問答》에서 ‘了’ 혹은 ‘過’ 등으로 대치될 수 있는 ‘來着’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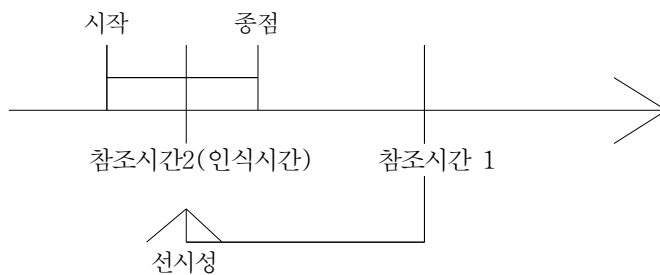
這幾天看報沒有?	近數日看報也沒?(11p)
요 며칠 신문을 봤습니까?	
看來着。	看過。
봤어요.	
你數來着沒有哇?	汝曾數過否?(=22)
너 세었어 안 세었어?	
數來着。	曾數過。
세었어.	
都買甚麼來着哇?	皆購何物?(20p)
모두 무엇을 샀어?	

7) Bybee et al(1994), 陳前瑞(2006), 재인용.

買了點兒菜。	購些須菜蔬。
약간의 채소를 샀어.	
老沒見哪?	何久未見乎? (=20)
오래 안보이던데?	
出門來着。	曾出門。
출타했었어.	

예 (26)과 (27), (28)에 나오는 ‘來着’는 모두 사실 ‘了’ 혹은 ‘過’로 바꾸어 써도 대화를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예 (28)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화자는 ‘來着’로 질문한 대답에 ‘了’를 사용해 대답을 하고 있고, 예 (29)의 경우 대답의 ‘出門來着’를 ‘出門了’로 바꾸면 의미는 소통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동사와 ‘來着’의 의미에 있다. 이은수(2003)는 ‘來着’의 시간의 의미는 선시성과 동시성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했다.

‘來着’의 시간의미



위 도식과 같이 ‘來着’는 주어진 제 2의 참조시간, 즉 과거에 어떤 동작이 지속 혹은 진행됨을 인식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위 예의 동사 ‘看’이나 ‘數’, ‘買’는 과거의 시간에 그 동작이 발생하여 진행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들 동사는 모두 동사의 의미 안에 동태, 지속,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완성 동사이기 때문에 ‘來着’을 사용해도 완결(Perfective) 혹은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了’ 혹은 ‘過’와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買了點兒菜는 동사 뒤에 量化성분 (一)點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來着’가 가지는 선시성과 동시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量化성분은 종점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이는 요소이므로 동시성의 의미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수량사나 동사의 중첩 혹은 시간보어는 의미의 초점이 동작의 시작과 종점에 초점을 두는 요소이기 때문에 ‘來着’가 지나는 의미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완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了’을 사용해 대화를 완성한 것이다. 《官話問答》에서 나오는 ‘來着’의 구문은 대부분 예 (26), (27), (28)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來着’으로 묻는 물음에 동사 뒤에 量化성분이 없으면 ‘來着’으로 대답하지만 동사 뒤에 量化성분이 첨가되면 동사 뒤에 ‘了’를 사용해서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來着’은 종점의 경계가 확실한 결속 동사 혹은 결속의 의미를 보이는 성분과는 함께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 (29)의 경우는 ‘出門’은 동사의 의미 자체적으로 완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出門’ 뒤에 ‘了’를 사용하면 제 1 참조시간인 대화시점에 동작이 종결됨과 동시에 실현됨(즉 나가서 여기에 없다)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의(重義)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來着’를 사용하여 과거(제2의 참조시간)에 ‘나가있던 적이 있음 혹은 나가 있었던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발화 시간에 떠올리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소통되는 것이다. 이것은 ‘來着’가 가지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현재와 단절된 과거에 상황에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官話問答》에서 사용된 ‘來着’은 과거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완료상(perfect)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陳前瑞(2005)의 연구에 따르면 ‘來着’의 문법화의 단계를 살펴보면 ‘來着’은 과거의 특정사건을 나타내는 의미 특징에서 점차 비특정한 사건에 사용하는 용례가 증가했고, 현재와 과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례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에서 당대에 들어서는 최근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

는 의미가 늘어나다가 점차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완곡함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발전되었다고 설명했다. 《官話問答》에 나타나는 ‘來着’은 대부분 근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고 있다. 최근 과거를 나타내는 ‘剛才’는 1회에 불과하고, 시간의 의미가 배제된 완곡함을 나타내는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官話問答》에서의 ‘來着’은 객관적인 시간 의미만을 나타내며, 아직 주관화라는 문법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官話問答》에서 ‘來着’ 정반의문문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來着’을 통해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의 중국어 이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來着’은 현대 중국어학자들 사이에도 그 어법적 의미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제 개념에서부터 어기사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여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문언문의 해석을 통해 ‘來着’이 일찍이 있었던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분에서는 직접적으로 ‘因’을 사용해 과거의 사건이나 정황이 현재 상태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來着’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여 ‘來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당시 우리 선조들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다양한 현재 상황에서도 중국어 교육에서 ‘來着’에 대한 학습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중국어 교재에서 ‘來着’이 이와 같이 활발히 다루어졌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교재가 문답 형식의 회화체이고, ‘多嘴’, ‘幾兒’, ‘不家’와 같은 동북지방과 북경지방의 방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來着’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도 저자가 ‘來着’을 적절한 언어 환경 속에 사용함으로써 ‘來着’이 나타내는 어법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한 점은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來着’은 분명 과거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完了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官話問答》 속에 나타난 ‘來着’을 통해 당시 ‘來着’의 사용정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 선조들이 ‘來着’에 대한 이해도 살펴볼 수 있었다.

《官話問答》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중국어 교재이다. 우리 선조들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국어의 학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교재를 만들었다. 이 시기의 중국어 회화 교재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어휘나 어법을 살펴볼 수 있고, 현재의 중국어와 차이점을 고찰해 볼 수 있으며, 내용을 통해서도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또 당시의 교재들 가운데는 국어로 해석을 덧붙인 중국어 교재도 존재하므로 국어 연구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 朴在淵·金雅瑛 交點,《官話問答》(선문대학교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10. 4.
- 陳前瑞, <“來着”的發展與主觀化>, 《中國語文》, 2005. 4
- 熊仲儒, <再論“來着”>, 《漢語學習》, 2009. 6.
- 宋玉柱, <關於時間副詞“的”與“來着”>, 《中國語文》, 1981. 4
- 張誼生, <略論時制助詞“來着” - 兼論“來着1”與“的”以及“來着2”的區別>, 《大理師專學報》, 2000. 12.
- 王力,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1943, 1985年版

- 龔千炎, 《現代漢語時相, 時制, 時態》, 商務印書館, 1995
- 熊仲儒, <“來着”的詞彙特徵>, 《語言科學》, 2003. 3.
- 陳前瑞, <“來着”補論>, 《漢語學習》, 2006. 1.
- 楊希英, 王國栓, <“來着”(來,着)與漢語的時制>, 《廣西民族學院報》, 2006.7.
- 蔣紹愚·曹廣順,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 (商務印書館), 2005
- 朴在淵, 金雅瑛 交點,《支那語集成》,《漢語會話書》(학고방), 2009.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北京大學出版社), 2003.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商務印書館), 1999
- 이은수,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연구- 了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中文提要>

“來着”是北京話中很有特點的一個詞。“來着”一詞很早就引起了人們的關注, 並取得了較為豐富的研究成果。但問題仍然存在。“來着”的分布情況各家都有涉及, 但現有的說明不完全符合語言的實際情況。

目前為止, 關於“來着”學界大概有三種看法: 一是認為“來着”跟“時”有關—“時制(Tense)”或“時體(aspect)”; 二是認為“來着”跟“語氣”有關; 三是認為“來着”跟“時”與“語氣”兩方面都有關。

本文首先介紹了日帝強占時期的漢語會話書《官話問答》。《官話問答》是韓國國立中央博物館所藏的筆寫本漢語教材, 年代與作者不詳, 而根據內容, 推測於1915年左右出版的。《官話問答》中檢索到 36 例有效的“來着”用例。

通過分析《官話問答》中“來着”的句法特徵和意義特徵, 認為“來着”是指稱事件發生在過去并現時語境有影響的標記, 即完成體(Perfect)標記。《官話問答》中還沒有出現“語氣詞”的用法, 而本文認為在《官話問答》中還沒充分

進行語法化的過程。

주제어 : 《官話問答》, 漢語教材, '來着', 日帝強占時期, 完成體(perfect)